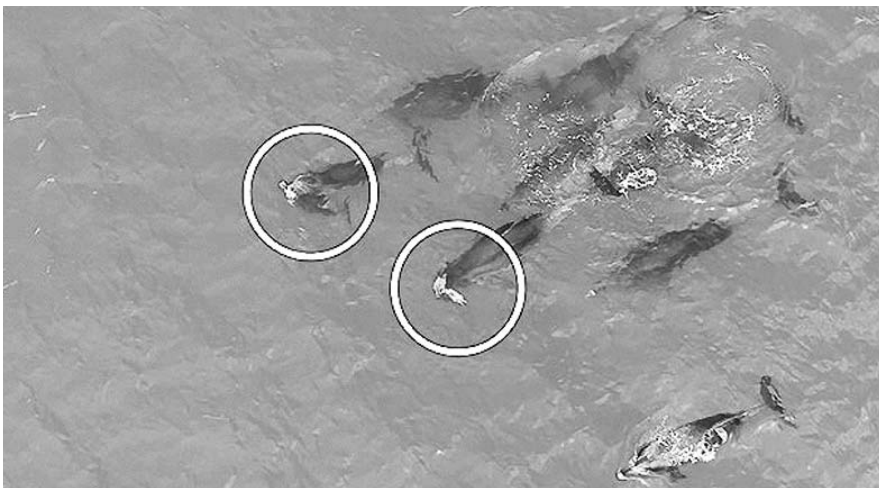




죽은 새끼 업고… 애절한 남방큰돌고래의 모정

주둥이에 없고 장거리 이동
“올해 들어 4마리 폐사 확인”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어미들이 각각 죽은 새끼들을 업고 다니는 모습이 또 목격됐다.

9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구좌읍 감녕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각각 주둥이에 얹어 다니는 두 마리의 어미가 포착됐다.

»사진

죽은 새끼 돌고래는 지난 2023년

3마리, 2024년 9마리, 2025년 5마리가 다큐제주에 의해 발견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방파제 앞 해상과 3월 13일 대정읍 일과리 앞바다에 이어 전날 감녕리 앞바다까지 총 4마리가 확인됐다.

오 감독은 “아직까지 새끼 돌고래의 죽음에 대한 뚜렷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스트레스로 인한 가능성, 자연 질병, 기타 질식사 등이 추정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해양쓰레기나 낚시줄, 폐어구에 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스쿨존 불법 주정차 방학 기간에도 단속

제주시, 내달 3일 가동… 돌봄교실 등 어린이 보호

방학기간에는 유예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8월 3일부터 정상 가동한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련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스쿨존을 포함하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읍면동 지역 CCTV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읍면동 지역 CCTV 운영 기준은 ▷동지역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읍면지역은 하계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동계 오전 7시30분~오후 7시 등이다.

그동안 시는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운영,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속 대상은 읍면지역 20분 이상, 동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지역 초등학교 스쿨존 내 CCTV 설치 현황은 전체 73개교 가운데 48개교(설치율 64.6%, 85대)에 그쳤다. 동지역은 34개교 중 17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설치율 97%, 64대)된 반면 읍면지역은 39개교 중 15개교(설치율 35.8%, 21대)에 불과하다.

백금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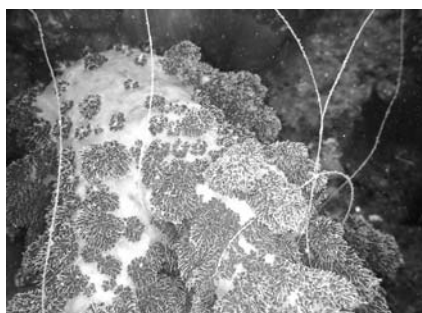
“지정하면 끝?”… 폐어구로 몸살 앓는 제주바다

해양보호구역 폐어구 조사… 50곳 중 92%서 발견
파란 “보호생물도 피해… 피해 예방 정책 마련해야”

제주 해양보호구역에서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제주해양보호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만하고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9일 발표한 ‘제주 해양보호구역 폐어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도립공원·습지보호구역을 포함한 제주 해양보호구역 16곳의 50개 조사지점 가운데 92%인 46곳에서 폐어구가 발견됐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폐어구는 모두 37종 1661개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성산일출봉 주변 해역에서부터 대정읍 신도리 해역, 범섬·문섬·섬섬 해역, 추자도 해역까지 제주 동부·서부·남부·북부 해역의 제주 해양보호구역 16곳을 대상으로 6명으로 구성된 탐사대가 육상·수중에서 폐어구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는 보호구역별 폐어구 유형과 분포,



문섬에서 발견된 낚시줄이 얹혀있는 큰수지맨드라미. 파란 제공

생태계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 등을 담았다.

또 폐어구에 얹혀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은 23종 183개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해양생물 가운데 6종은 남방큰돌고래,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됐다.

해양보호구역 바닷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침적 쓰레기는 ‘레저 낚시용 낚시줄’ (23.4%)이었다. 낚시줄에 걸린 피해 해양생물은 대부분 해조류와 산호류였는데, 조사기간 중 신도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남방큰돌고래 1마리가 낚시줄에 걸려 폐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육상에서는 플라스틱 부표가 전체 해



바다 속에서 폐어구를 조사하는 수중 조사팀.

파란 제공

양쓰레기 중 34.8%로 가장 많았다.

해양보호구역별 폐어구 발생 양상도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에는 제주 동부인 성산일출봉 주변 해역에서는 연승 어업, 서부인 대정읍 신도리 해역에서는 육상 양식장과 레저 낚시로, 남부인 범섬·문섬·섬섬 해역에서는 레저 낚시로 인한 피해가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부 해역에서는 해상 양식장과 대형어선에서 발생한 폐어구가 주요 오염원으로 확인됐고, 추자도 해역의 경우는 방치된 해상 양식장에서 유실된 폐자재가 거머리말 군락지에 쌓이며 피해를 주고 있었고, 관탈도 해역에서는 대형 어선에서 발생한 폐어망이 주 오염원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파란은 “제주는 지난해 기준 관할 해역의 11.6%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넓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중인 지자체이지만 지정 이후 실질적인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수중에서 발견되는 폐어구는 발생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발생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 제주도정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폐어구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애조로, AI·디지털트윈 기술로 통행속도 개선

평균 통행속도 최대 14% 향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으로 제주시 애조로의 교통흐름이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력해 애조로 하구1리교차로에서 동샘교차로에 이르는 약 13.4km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최대 14.1% 향상되고 차량 지체시간은 31.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교차로 분석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52.09km/h에서 54.24km/h로 4.1% 향상됐으며, 평균 통행시간은 18분59초에서 16분30초로 13% 단축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실제 주행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통행속도는 37.6km/h에서 42.9km/h로 14.1% 향상됐고, 평균 통행시간은 23분21초에서 19분31초로 16.4% 단축됐다. 차량 지체시간은 9분44초에서 6분42초로 31.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은 하반기에도 상습 정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 “도, 원청교섭 응해야”

민주노총 소속 노조 3곳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제주생활체육지도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에 이어 지난 6월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광역시생활자지원센터지회 등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 3곳이 제

주도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하청노조는 진짜 사용자인 제주도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응답을 기다려왔지만 한 달이 넘도록 도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커녕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계약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제주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정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